

“약자들의 목소리 작품에 녹여내겠다”

예술인의 방

<6> 박화연 작가

회화부터 영상·설치미술 아울러
5·18과 사북항쟁 연결 작업 시도

“개인적으로 작가의 역할은 발굴하고 전달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술적 영역 안에서 녹여낸 약자들의 목소리를 함께 들여다봐 주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박화연 작가(33)는 광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프리랜서 작가다. 박 작가는 학대받거나 유기된 동물 그리고 억압받은 노동자와 같은 약자의 목소리를 설치미술과 미디어아트 등으로 담아내고 있다.

박 작가에게는 또 하나의 직업이 있다. 복합예술공간 ‘지구발전오라’의 일원으로서 광주에 정착해 작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작가들을 돕고 있다. 박 작가는 “지구발전오라는 지난 2015년 지역에서 예술을 전공하고 활동하는 이들이 모여서 문을 연 복합예술공간이다. 지난해부터 이곳에서 근무하며 지역작가들이 예술활동을 잘 펼칠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박 작가는 ‘소외’ 그리고 ‘약자’에 관심이 많다. 과거 본인 또한 약자라는 생각이 더 관심을 기울였다. 자신의 모습에서 출발한 약자에 대한 관심은 버려진 쓰레기와 학대받는 동물·식물 그리고 사람까지 대상을 확장했다. 한국화를 전공한 박 작가는 초기 회화 작업에서 벗어나 영상과 설치까지 다양한 영역을 아우르며 약자들의 목소리를 포착하고 있다.

박 작가는 “저 또한 여성이고 사회적인 권

위도 없어 약자라는 생각이 들다보니 힘없는 존재에 관심을 가지게 됐다”며 “쓰레기 봉지 안에 갇혀서 버려지는 동물도 많이 목격했던 경험도 있었던 터라 그 점을 회화로 묘사하며 문제의식을 던졌다. 대인시장 레지던시에 참여하고 기획자들과 영상작업도 하며 회화 뿐만 아닌 다양한 시도를 하게 됐는데 억압받고 소외받은 대상을 영상과 설치 미술을 활용해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작가의 주요 개인전과 단체 등을 살펴봐도 이러한 문제의식에 대한 메시지를 살필 수 있다. 지난 2015년 처음 선보인 개인전 ‘간직하고 싶은 순간’에서는 잊혀진 순간과 사라져 버린 풍경에 주목한다. 이후 2017년 두 번째 개인전에서는 버려진 녹슨 철, 죽은 나무, 자물쇠로 만든 ‘In the Cage’의 설치 작품을 통해 전봇대나 건물 귀퉁이에 방치된 화분 속 식물과 같은 사람들에 의해 삶과 죽음이 결정되는 식물을 바라본다. 이후 기업들이 노동자들에게 행하는 비상식적인 처우를 꼬집는 목소리로 더 확장한다.

2018 광주비엔날레에서는 1980년 5·18민주화운동 참상 이후 유가족의 현재적 아픔을 다룬 아카이브 작품과 영상을 선보였다.

박 작가는 “광주에서 활동하는 작가이기 때문에 5·18을 다룬 것은 아니다. 억압당하는 존재를 주제로 하는 작업을 하다보니 유치원에서 망월동 묘역으로 견학 갔을 때 봤던 명동고 쪼끈 희생자들의 사진이 떠올랐다. 두 번째 개인전에서 선보였던 케이지 작업과 연결해 유족의 구술과 사진 등을 토대로 한 이야기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월 열린 ‘도시작조 WeavingLab



박화연 작가가 전남방직과 일신방직이 보이는 발산마을에서 포즈를 취했다.

’에서는 일신방직 여성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담은 작품을 선보였다. 공간 속을 배회하고 굴러다니는 실타래를 통해 노동의 형태가 여성에서 외국인 노동자로 바뀌고 있음을 보여줬다.

박 작가는 “우연히 앨범을 보다가 엄마가 부산 신발공장에서 근무했다는 사실을 알았다. 어머니의 그런 삶이 발판이 돼 씨앗이 되고 그 돌봄 속에 성장했지만, 정작 그 삶을 들여다보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다 일신방직 여성 노동자들의 부당했던 삶의 이야기를 듣게 됐고 그 관심이 작업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최근 들어서 박 작가는 사북항쟁에 대한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사북항쟁은 1980년 4월 21~24일 국내 최대 민영 탄광인 동원탄자 사북영업소 광원과 가족 등 6,000여 명이 어용노조와 열악한 근로환경에 항거, 나흘간 정

선 사복업을 점거한 사건을 말한다. 현재는 사북항쟁과 5·18을 연결하는 작업을 풀어나는 전시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박 작가는 “그간 작업을 하며 깨닫게 된 점은 사복과 5·18은 고립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권력과 사회의 시선에 의해 고립됐던 해아릴 수 없는 시간 속에서 결사항쟁으로 저항했던 많은 이들의 목소리가 사라지지 않는 울림으로 와 닿았다”며 “앞으로도 작업을 통해 이 울림들이 더욱 멀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또 그 안에서 제가 느낀 다양한 감각을 대중들과 함께 나누고 싶다”고 말했다.

지역에 남아 작업을 이어가는 이유에 대해 박 작가는 “지역에서 외면받는 약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싶기 때문이다”며 “지역에서 하고 싶은 말이 많다. 앞으로도 약자들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목소리를 작품에 녹여내고 싶다”고 말했다. /이나라 기자

전남관광 다카시 ‘웃음꽃 전남’



사성암

이성관

허위허위 올랐네
안개 숲을 헤치며

산봉우리 오르니 천하의 비경이라
내려 보면 구름바다 무릎이 예 아닐까

나는야 신선이 되어
하늘 날 듯 싶었네.

체험통해 신창동 유적 이해해요

마한유적체험관 연령별 프로그램 다채

광주역사민속박물관은 유아부터 성인을 대상으로 한 마한유적체험관 상반기 체험프로그램을 선보인다고 26일 밝혔다.

체험관을 찾은 관람객들이 신창동유적에 대해 쉽고 재미있게 이해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다.

‘신기한 보물수레 이야기’와 ‘신창동 유물액자 꾸미기’는 유아(5~7세)를 대상으로 어린이가 고고학자가 돼 신창동 유적의 발굴조사 과정을 살펴보고 출토된 유물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알아보는 체험형 교육이다.

오는 4월 8일부터 6월 24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에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신창동 토기제작공방 ‘구멍 송송 토기 시루 만들기’는 시루를 직접 태쌍기 방식으로 만들어 보며 벼농사를 기반으로 했던 신창동 사람들의 식생활과 토기에 대해 배워보는 체험이다.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신창동 목기 공방’은 유적에서 출토된 다양한 목기 유물을 모티브로 한 체험프로그램이다. 직접 칼로 나무를 깎고 다듬어 여러 가지 생활 소품을 만들어 보며 나무의 재질과 성질에 따라 도구를 만들어 썼던 신창동 사람들의 목기 제작 기술을 이해해 보고자 하는 의도로 마련됐다.

자세한 내용 확인과 체험 신청은 광주시 홈페이지(www.gwangju.go.kr)와 광주역사민속박물관 홈페이지(www.gwangju.go.kr/gjhf)를 통해 가능하다.

/이나라 기자

영암하정웅미술관 미디어아트 ‘달빛토크’ 전

30일 오후 3시...이이남 9점 선배

영암군립하정웅미술관이 2023 영암왕인문화축제를 기념해 오는 30일 오후 3시 미디어아트 ‘달빛토크’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지역을 넘어 세계로 이름을 알리고 있는 이이남, 박상화 작가를 초대해 영암의 역사 문화와 자연 자원의 콘텐츠를 디지털 아트로 구현, 축제를 찾는 관람객들의 달

빛 감성을 불러일으키는 전시를 선보일 예정이다.

기간 중 상설전시실에서는 ‘다시 태어나는 빛’을 주제로 왕인박사의 문화적 교류와 화합의 정신을 재해석해 역사와 문화, 현대성과 대중성을 잇는 이이남의 작품 9점을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그의 작품 중 ‘왕인, 빛을 건네다’는 디지털 기법을 통해 왕인으로 상징되는 산수화의 속 인물들이 빛을 들고 고흐를



이이남 ‘달항아리 풍경’

만나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연출돼 왕인의 문화교류를 상징적으로 표현했다.

기획전시실에서는 ‘소요풍정·월출산’이

라는 주제 아래 특별한 사유의 공간 구성을 통해 영암의 자연(월출산)과 조화를 이루며 건축된 서원과 정자 등의 문화유산을 예술적으로 재해석한 3점의 작품이 전시될 예정이다. 관람객들이 자신만의 사유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몰입형 공간을 연출한다.

한편 창작교육관에서는 ‘풍경, 마음을 붙잡자’를 주제로 노다노리오가 마음으로 그린 거리, 역이 있는 풍경들과 영암 화가들이 바라본 자연과 도시의 풍경을 그린 작품들이 전시 중으로, 해당 전시는 9월 17일까지 진행된다. /영암=최복섭 기자

(유)하우젠공조시스템
Samsung System Air Conditioner

www.shsa.kr

삼성전자 시스템에어컨 & 가전 대량납품 전문회사

(유)하우젠공조시스템

(유)하우젠공조시스템은 학교, 아파트신축, 대형빌딩, 병원, 대형교회 등 시스템에어컨 대량납품 전문회사로 최첨단 제품으로 저비용, 고효율의 최적 맞춤설계 및 고품질 시공과 완벽한 사후 관리를 약속드립니다.

대형건물용 실링
DVM S2

대형건물용 실외기
DVM S2

Certificate of Samsung Star Partner
2022
우수기업
삼성전자 (주) 하우젠공조시스템
신철우 대표이사

서광주IC, 호남고속도로, 동광주IC, 용봉진입로, 전라랜드, 용봉점, KFC, 대계수신, LG전자, 용봉점, (유)하우젠공조시스템, 용봉지구대

시스템에어컨 파트너
유망회사 하우젠공조시스템

영·업·모·집

○ 정규직 2명 ○ 프리랜서 수시
※ 남·녀 연령 무관 / 출퇴근 자율

www.shb2b.kr 광주광역시 북구 문화소통로 54(용봉동) FAX. 062-515-7878 E-MAIL. shsa9999@daum.net TEL. 062-511-0006